

## 제4강: 안다는 것에 대하여

### ◆1교시: 배우는 주체로서의 지자(知者)와 무자(無者)

#### ▲ ‘신중’ 소피스트들의 출현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희극의 양식을 띠고 있는 전형적인 작품인데요. 그리스의 드라마엔 비극과 코미디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비극을 얘기하죠. 왜 희극이 없을까.

그것을 소설화한 것이 『장미의 이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희극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미디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양식 중의 하나인데요. 희극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일한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클리톤에게 말을 전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에 얘기했듯 액자형식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소피스트가 등장하지요.

소피스트 역사를 보면 초기에 프로타고라스 프로디코스,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른바 후기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불필요한 억지스러운 논쟁을 많이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막가파가 되지요. 크레온 같은 사람은 연설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데, 그게 유행이 될 정도로 타락하지요. 디오니소도로스도 말년에 소피스트의 언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니아스와 크시디푸스가 나오는데요. 클레이니아스는 젊은 사람이지요.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미남입니다. 굉장히 동성애적인 표적이 되는데요. 클레이니아스도 아주 잘 생겨서 동성애의 표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 클레이니아스를 좋아한 사람이 크수디푸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스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동성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테네가 가장 전형적이지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동성애가 많은 이유로 아테네를 비판합니다. 물론 이 동성애는 육체적인 동성애도 있었겠지만요.

지금은 모든 것이 남녀 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녀 간의 사랑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물론 실제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남녀 간의 사랑은 공식적이고 생식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남자와 남자간의 사랑이 의미가 있다고 볼 정도로 동성애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액자 바깥이죠. 소크라테스와 클리톤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클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죽마고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와서 탈출하자고 설득하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탈출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것이죠.

그러나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의 누가 그런 말을 퍼트리는 바람에 유행이 되어버렸죠.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거의 밝혀졌죠.

클리톤과의 대화편이 있죠. 그 죽마고우에게 에우티데모스 와 디오니소도로스와의 만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소피스트들은 대개 이방인들이예요. 외지인들이지요. 31쪽을 보죠.

신중 소피스트란 말이 나오죠. 신중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고전적 소피스트들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새로운 형식의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랍 사람들에게 신중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32쪽에 가면,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평가, 적개심 어린 표현이 나오지요, 만능 싸움패.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소피스트들의 주특기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건 논박하기 때문이지요.

eristike. 아테네 이전에는 칼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최고였죠. 그러나 평화시대가 오게 되면서 아킬레우스처럼 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지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인 웅변과 재판정에서의 변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웅변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勢)를 잡는 웅변술. 그리고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는 것. 그때는 재판이 일상적인 것이었죠. 지금과 많이 다르죠.

지금의 재판은 특별히 큰일이 아닌 이상 재판을 하지는 않죠. 요즘은 살면서 재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두어 번 가보기는 했지만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시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스는 재판 문화입니다. 마치 재판이 지금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봤냐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재판이 완전히 일상사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연극이고 드라마입니다. 지금의 스포츠나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웅변을 잘 하고 변론을 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rhetoric이 뛰어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딱 잡아내서 논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살아남겠지요.

그때의 재판이란 배심원이 한 오백 명 정도였을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일종의 스포츠와 비슷합니다. 인민재판(人民裁判) 비슷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제압을 해야지요. 그것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것에 대해 elenchos를 제기하죠. 덮어놓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eristike은 논박술이라고 번역하죠. elenchos은 토론술 정도로 번역합니다.

물론 냉소적으로 보면 이 둘이 명확하게 구분되느냐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똑같은 것은 아니죠.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만능 싸움패라는 말을 쓴 이유는 덮어놓고 말싸움을 하지 말자는 의미이지요. 어떤 것에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죠.

법정에 알맞은 논변을 구사하고 작성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막강하다. 논변으로 싸우고 어떤 주장이든 논박하는 것이 능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에우티데모스에게 가서 한번 배우자고 하죠. 프로타고라스의 구성방식과 똑같죠. 33쪽 아래에서부터 액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에우티데모스와 디오니소도로스가 한 덩어리고, 클레이니아스와 크시디푸스가 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죠.

주목할 것은 35쪽의 맨 위에. 더구나 이분은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일종의 변호사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은근히 그 사람들을 언급하니 에우티데모스는 그런 일은 우리가 부업 삼아 하는 일일 뿐이다. 더 이상 전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에우티데모스 스스로도 법정에서 저렇게 eristike를 하는 것이 그다지 고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arete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법정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도 변별해서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얼핏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무엇이나. 그 밑에 나오죠.

우린 덕을, arete를 누구보다 아름답고 빠르게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rete라는 것은 원래 귀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귀족을 특징짓는 거죠. 귀족과 평민을 구분지어 주는 거죠.

이 시대가 되면 arete가 일반화되고 다양화되죠. 상고시대의 귀족들의 특징이었던 arete가 고전시대가 되면 일반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arete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편을 크게 세 파트입니다. 소피스트들이 클레니아스에게 괴변을 늘어놓는 것. 소피스트적인 퀘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 대화편입니다.

그것이 아주 코믹하고 냉소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결이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7쪽 아래. 당신들 두 분이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돌보라고 아름답게 권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당신들이 덕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덕이 과연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돌보라고 권유하는 것인지 진정성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얘기들이 이하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38쪽입니다.

#### ▲ 배우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변론이 나오죠. 첫 번째 변론은 배운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논변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51쪽의 맨 아래까지 갑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피스트들이 퀘변을 사용해서 클레니아스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전반부이고. 그 이후부터 끝까지가 소크라테스의 논박, 교정이죠.

(청중 낭독)

거기서 소피스트들의 사상이 엘리아 학파에서 온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죠. 흔히 플라톤 사상의 중요한 원천을 엘리아 학파라고 보죠. 플라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사실 소피스트들도 엘리아 학파에서 온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죠.

파르메니데스 (Parmenides. ?-?)가 일종의 플라톤의 사상적 아버지인데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이는 친부살해를 감행해서 엘리아 학파를 비판하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흥미롭죠. 엘리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의 맥락에서 활용할 한 거죠.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플라톤의 판단이지요.

첫 번째 논변을 보면요. 38쪽의 맨 아래부터 시작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인가 무지한 사람인가. 이것이 소피스트들이 제기한 물음이죠. 그런데 이견 약간 포인트가 다르지만 메논편에 이런 주장이 나오죠.

앞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죠. 이미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

메논 자신이 고르기아스(Gorgias, B.C.483~B.C.376)에게서 배웠으므로 아마도 그런 논변은 고르기아스에게서 왔다고 보이는데요. 아는 사람은 이미 알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앎과 모름이란 백퍼센트 양극화해서 보면 안 되고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란 것은 백퍼센트 아는 존재도 아니고 백퍼센트 모르는 존재도 아니다.

앎이라는 것은 degree,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dynamis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박흥규 전집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본 것이 철학이란 무엇인가였죠.

거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dynamis였죠. 인간이란 백퍼센트 알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요새 말로 하면 faculty이지요. 자기의 능력, faculty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간자이지요. 그런 논법으로 고르기아스의 논법을 비판하죠. 여기서는 그 논법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과 통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느냐, 무지한 사람이 배우느냐. 클레이니아스가 그 어려운 질문에 당황했다고 되어 있고.

한편으론 지혜로운 자들이 배운 자들이라고 대답해도 그것을 논박하죠.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논박하는 거죠. 이런 식의 논박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논이죠.

아킬레우스가 눈으로 보면 거북이를 따라 잡는데 논변으로 하면 따라잡지 못하죠. 두 개의 doxa가, 의견이 alternative하게 나란히 가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paradoxa이지요.

이것도 사실 제논의 paradoxa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평행으로 달리지 않고,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입니다. 이것이 발전한 것이 dialectic, 변증법이지요.

소크라테스의 경우, 변증법이라고 하면 너무 무거우니 문답법이라고 하고 플라톤도 그것을 나중에 변증법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는 형식이 문학으로 하자면 드라마이지요. 『파우스트』에서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그래서 플라톤이 드라마 형식으로 책을 쓴 것이지요. 제논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배운다고 하니까 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냐고 논박을 하고. 무지한 사람이 배운다고 하면 이미 아는 사람이 배우는 예를 또 들며 논박을 하죠.

아는 사람이 배운다고 하면 무지한 사람이 배운다고 논박을 하고, 무지한 사람이 배운다고

하면 사실은 아는 사람이 배운다고 논박을 하고, 그것이 40쪽 맨 위에 나오죠.

지혜롭지 않다면 무지했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 자네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배웠군, 이것이 첫 번째 논변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래입니다. 앞에서는 아는 사람이 배운다고 얘기하니까 그에 대해 논박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배운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논박하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클레이니아스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42쪽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에우티데모스가 그 젊은이에게 달려들고 있던 차에 그 아이가 물에 빠지려는 것을 알아채고 숨 좀 돌리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눅 들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로 하였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에우티데모스나 디오니소도로스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식의 궤변은 언어의 애매성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 언어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메타적인 생각을 하지 않지요.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일 뿐, 언어 그 자체에 빠져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소피스트들은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얼핏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험매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논박하는 거죠. 배운다는 말 자체가 양의적이라는 거죠. ambiguous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소피스트들이 그 배운다는 말의 ambiguity를 사용해서 함정에 빠트리려는 거죠.

40쪽 7째 줄을 보죠. 프로디코스가 말하듯이. 프로디코스는 누구니까. 프로타고라스편 할 적에 거기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프로디코스가 말하듯이 처음에는 이름의 올바름에 대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작업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conceptual clarification이지요. 개념적 명료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름들의 올바름이 중요하다. 소피스트들의 논법은 이름의 양의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분들이 밝혀 보여주고 있듯이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자세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박흥규 선생의 분석을 통해서 봅시다. 88쪽. 클레이니아스, 배우는 자는 지자인가, 무자인가. 이 답변에 클레이니아스는 지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교사라고 부를 때, 교사는 배운 사람이고 교사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배우는 자들이 그들처럼 모르고 있었을 때 지자였는가. 아니다, 무자였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배우는 사람이 지자이나 무자이나고 물어보고 클레이니아스가 지자라고 대답하니까 이렇게 죽 논변을 취하는 거죠. 무지자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자가 자네들에게 입으로 불러줄 때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배우는 것인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인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배운다는 거죠. 지자가 배우는 것이 무자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양비논법이라고 할까. 이것을 갖고 클레이니아스를 논박하는 거죠. 그 요지는 89쪽에 있죠.

(청중 낭독)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죠.

(청중 낭독)

#### ▲ 앎은 축적되는 것이다

90쪽의 중간 이하에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식은 무로부터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이 알지 못함에서 갑자기 불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다.

무지자를 뜻하는 말은 아예 없다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결핍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dynamis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무에서 지식이 나온다면 어떤 과정, 배움, 노력,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겠죠. 결핍의 이면은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dynamis이지요. 그러므로 결핍상태에서 지식이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면 그 지식은 가능성으로부터 얻어진다.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존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배움은 이러한 노력의 일종이다. 이것이 앎과 모름을 잘라서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거죠.

파르메니데스가 한 일종의 하나가 존재와 무를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존재와 무의 섞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degree, 연속성은 성립할 수 없죠. 존재와 무의 모순관계, 배타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죠.

사실 소피스트들의 논변 속에는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플라톤

은 이것, 존재와 무의 배타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defree로, 연속성으로, 과정으로, dynamis로 보는 거죠,

이것은 희랍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지금도 중요한 얘기이고요. 어떤 것이 불연속적인 것인지 연속적인 문제인지. 이것이 존재론적 사고를 할 적에 항상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물의 가능성은 여러 방향에서 성립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떠한 사물의 가능성이 단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성립한다면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물의 가능성은 여러 방향으로 성립하고 배우는 것도 백퍼센트 아는 것과 백퍼센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뭉니까. 어떤 측면이 될지를 모르는 거죠. degree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aspect 를 갖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일정한 정도는 알고 일정한 정도는 모른다는 논법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측면은 알고 어떤 측면은 모른다는 perspective의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1쪽 맨 위에 보면, 이 두 상태는 모순된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측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지식의 결핍과 충만이 대립된 상태이다.

모순은 공존이 불가능하지만 사물의 측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사물의 결핍과 충만의 대립은 공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지와 지, 무지자와 지자를 엘리아적인 방식으로 완벽히 나누어서 생각함으로써, 지와 무가 마치 제논의 역설처럼 병행하게 되는 것이 소피스트적인 논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존재와 무의 모순관계가 아니라 degree, dynamis, aspect의 관계로 바꿈으로써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피스트들은 배운다는 것을 지와 무지로 백퍼센트로 나눈 다음에 놀리는 거죠. 그것을 논파하는 거죠. 철학사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대목 중의 하나죠.

(청중 낭독)

소피스트들의 논법이 제논에 연관되어 있고, 제논의 파라독스라는 것이 두 갈래의 논변이 평행을 달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 예로서 다가 있을 적에 그것이 유한하나 무한하나의 예를 들고 있죠.

그런데 다(多)가 있다면, 그것이 몇 개이든 정해져 있다고 보면 유한한 것이고. 그런데 현재에 있는 다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면 그것은 조심해서 봐야죠. 무한분할이지요. 1과 2가 있으면 2분의 1도 있는 거죠.



2분의 1과 1 사이엔 4분의 1이 있고, 또 그 사이엔 8분의 1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무한한 거죠. 제는 자신은 어디까지나 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논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소피스트들이 엘리아 학파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반성은 연속성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contradictory는 서로 불상용한 것이지요. 절대로 서로 융합할 수 없지요.

반면 contrary는 이어지는 것의 양끝이란 거죠. 현대 생존론을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들이 구사하는 것이 이 논법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남성과 여성 사이가 이렇게 뺨 뚫린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플라톤의 논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소크라테스가 클레이니아스에게 소피스트들의 수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죠.

## ◆2교시: 안다는 것, 앎, 지식에 관하여

### ▲ 안다는 것은 사용할 줄 아는 것과 가르칠 줄 아는 것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니까. 프로타고라스는 덕성의 이질성을 강조했고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통일성, 덕성들과의 통일성을 강조했죠. 그것을 얘기할 적에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전부를 등질적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되죠. 용기나 지혜, 절제가 다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두 번째는 독자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 덕 자체는 그것을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방법이 아니죠.

세 번째는 뭐니까. 지혜지요. 지혜를 특권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혜는 좁은 의미의 지식은 아니죠. 윤리 같은 건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통일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플라톤이 sophia 라는 말을 쓰고, 프로메스란 단어를 쓰고 techne, 어떤 때는 epistme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사어들을 구사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분하죠. epistme, 실천적인 지혜와, sophia. 철학적인 지혜로 구분하죠. epistme는 지식. 플라톤만 해도 이런 용어들이 구분되지 않죠. 철학 전문화란 개념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야 철학 전문 용어가 생깁니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인 용어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 상당히 복잡하죠. 여

가서 이 양반이 강조하는 건 영혼 밖에서 좋은 것과 안에서 좋은 것을 구분하는 거죠. 맹자도 이런 구분을 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 예컨대 건강하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사실 플라톤적인 편견일 수도 있죠. 신체를 껍데기로 보는 것. 몸을 떠난 것은 허깨비죠. 건강을 외적인 것으로 보는 건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안으로 좋은 것, 지혜 등의 덕성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잘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거죠. 전장에서든 지혜가 있어야만 승리하고, 물건을 만들 때도 지혜가 있어야만 잘 만들고, 정치를 할 때도 그렇죠. 지혜 없이 잘 할 수 있는 게 어딨냐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용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는 증거가 무엇인냐는 거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안다는 증거가 무엇이나. 자동차를 탈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거죠.

여기서는 사용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검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에게 검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진짜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될 텐데요. 제가 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다른 겁니다.

다 아는 데 가르치는 게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지금 epistme, sophia 란 말을 쓰고. 다 플라톤에서는 유사한 축을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질 적에 우리가 무엇을 터득할 수 있고, 터득을 할 적에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중 낭독)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혜는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된 입장이죠. 그러나 지혜를 가르친다. arete를 가르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요.

그 문단 맨 아래 클레이니아스가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 하나의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지식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참 뒤에 나오지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클레이니아스의 대화에서 일반화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혜,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은 행위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는 행위가 있고 성공이 있고. 잘 되는 행위는 상태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고 성공은 결과 중심이죠. 그 반대가 잘 못하는 것이고 과오(過誤)지요.

잘 못하는 것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과오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고 과오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행위 일반의 문제는 배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과오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과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감상 과오보다는 실패지요.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을 하면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자동차를 타면 잘 몰고 싶어 하는 거죠. 과오 혹은 실패 오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오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후기 대화편을 보면 소피스트들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죠.

(청중 낭독)

#### ▲ 결국 중요한 것은 앎, 지식이다

과오라든가 행위,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정교한 분석이 나오죠. 일단 행위를 선을 소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고요. 사실 선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 플라톤적 실체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이고 사실 잘 하는 것 정도죠.

예전에도 얘기했죠. 플라톤을 번역할 적에 선과 악으로 번역하면 어감이 무거워진다고 얘기했죠. 그냥 좋음과 나쁨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선을 소유한다고 하면 웬지 중세철학 같잖아요.

그것보다는 좋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플라톤적인 실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oodness를 내포한다고 해도 좋죠. 사용하는 행위에서 행복이 나온다. 사용하는 행위에서 행복이 나오니까 어떤 것을 알기만 하고 담아두는 것은 아니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휘되고 과정 속에서 실현되고 진행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든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내가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 또한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적에는 올바르게 이어질 수도 있

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 dynamis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성공과 실패, 잘됨과 잘안됨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만약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 후회 등이 들어가는 거죠.

올바르다는 말도 사실 좀 강한 표현이죠. 이 맥락에서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올바르다는 것 보다는 잘 되는 거죠. 좋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어진 사물과 행위의 주체의 좋은 상태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규정이죠.

이러한 법칙은 행위가 많은 부분으로 분절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어떤 하나의 일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가 종합되서 길게 이어지는 경우,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어떤 하나의 행위가 전체 속에 제대로 복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사물들을 제대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적에 중요한 것은 그 사물들의 관계 법칙을 따르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전히 지식을 강조하고 있죠. 지식은 행위의 주체자와 대상, 목적을 연결해주는 거죠. 어떤 주체자가 있고 그것의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혜가 있을 때에만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은 행위에 선행하므로 주체와 대상과 목적을 분리시키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만약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을 적에는 행위주체, 대상, 목적이 시공간 속에서 파열되어서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따로 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식 속에서 행위의 주체는 사물의 목적과 대상에 도달하고 합일한다. 행복이란 이 합일된 상태가 시공간 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성공은 그것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죠. 플라톤의 목적론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그 행위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터득해야 한다는 거죠.

터득한다는 것은 사물의 법칙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이죠. 사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행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양자택일적으로 대립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다른 의미는 동시에 선도 악도 아닌 것이 중간에 위치해 있음이 그 말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악은 사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때보다 더욱 나쁘며 선도 악도 아닌 것보다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도 악도 아닌 것은 선보다 나쁘지만 악은 선도 아닌 것보다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은 적극적인 행위의 결여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그래서 지금 원래의 출발점은 배운다는 것을 소피스트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곤란에 빠트리는 것이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부는 소피스트들의 논법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그 얘기를 하면서 확대해서 배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에서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안 나와 있죠. 박흥규 선생의 분서에서조차 안 나와 있는데요. 분석해 보자면요. 클레이니아스, 네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배운다는 말에서 소피스트들의 말에 농락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네가 지혜가 없어서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지혜가 이끌어가야 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농락을 당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성공은 지식을 따른 것이며 실패는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도 했고. 실패, 성공, 잘 함, 못 함이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 문단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말을 정교화 하는데요.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 지식이 제일 중요한데 행동력은 조금 다르고, 행동력은 용기, 부지런함 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인간 지식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하지만 꼭 지식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 행동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말하는 sophia 라는 그 자체가 원래부터 순수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하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는 sophia 라는 순수의식을 강조했다면 거기에 행동을 굉장히 강조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sophia , epistme란 말 자체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행동력과 구분하긴 하지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외부에서 저절로 오는 것은 지혜를 볼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